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4, 안락사와 의사 지원 자살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안락사와 의사 지원 자살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논의할 다음 이슈는 말기 치료 문제, 안락사, 의사 지원 자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서두르는 것이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럼,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생명 유지 종료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의료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함으로써 누군가가 죽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보조 자살은 의료 전문가가 누군가에게 치명적 주사와 같은 어떤 수단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방법을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자비적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죽음을 돕는 것이 적절하거나 치명적 주사를 통해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 재촉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에 약간의 법적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1975년, 제가 어렸을 때의 Karen Ann Quinlan 사건을 기억합니다. 70년대 중반에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이익이 의료 전문가의 전문적 성실성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 카렌 앤 퀸란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죽는 것을 허용하기를 원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다음 1990년 크루즈 앤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음식과 물을 포함하여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워싱턴 대 클릭스버그 사건 과 바코 대 쉘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보조 자살을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주에서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이후로, 적어도 작년 기준으로 9개의 다른 주, 9개의 미국 주가 의사 보조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버몬트, 몬태나, 콜로라도, 하와이, 워싱턴, 메인, 뉴저지, 그리고 DC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합법적인 의사 보조 자살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의사 보조 자살이 합법적인 것을 지지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구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다양한 말기 치료 문제에 호소되거나 적용됩니다. 하나는 일반 수단과 특별 수단의 구분입니다. 일반 수단이란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재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항생제, 수혈, 영양관과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의료 기술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하거나 이국적인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 수혈과 영양 튜브는 한때 특별했던 것이 평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별한 수단에는 장기 이식이나 인공호흡기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어쩌면 인공호흡기가 평범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나 과도한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의 경우, 물론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다른 구분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보류하는 것과 철회하는 것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특정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것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과 죽게 두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사람을 죽이도록 두는 것과는 반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오거나 일으키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중요한 차이는 이 토론에서 때때로 언급할 것입니다.

말기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는 도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상의 경우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다양한 가능성 또는 시나리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전 지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생전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환자가 말기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옵션은 내구성 있는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자가 주치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든 자신을 대신하여 말기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두 사전 지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거나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친구나 가족에게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환자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옵션 중 어느 것도 추진되지 않았고 환자가 무엇을 진술했는지 또는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없다면, 누군가가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지정된 대리 판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기 치료 결정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생전 유언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내구성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어떤 경우든, 특히 성인이 되고, 특히 노년이 되면, 말기 치료 상황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명시한 서면 문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뇌 해부학의 기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데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세 가지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분에는 대뇌가 포함됩니다. 이를 상위 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의식, 인지, 사고, 기억, 감정, 지각을 제어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그런 다음 소뇌는 조정, 신체 움직임, 자세, 균형 등을 제어합니다. 그런 다음 하부 뇌, 뇌간은 우리가 식물 기능, 호흡, 호흡, 심박수 및 수면 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지배합니다.

죽음에 대한 주요 정의에 관해서는 이러한 해부학적 구분이 작용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전체 뇌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죽음의 기준이나 기준은 전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뇌 전체가 기능을 멈춰야 합니다. 반면, 더 높은 뇌의 죽음 정의에서는 대뇌, 대뇌 피질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만으로도 죽음에 충분합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온 뇌가 아닌 정의가

있지만, 적어도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 외적 정의는 호흡과 혈류와 같은 뇌 외적 신체 기능 이나, 가장 두드러지게는 영혼이나 정신이 신체를 떠난다는 생각과 같은 형이상학적 사건의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영혼이 신체를 떠난다는 형이상학적 현실과 같은 뇌 외적 개념을 다른 뇌 정의 중 하나, 즉 전체 뇌 또는 고등 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와 지속적 식물 상태 또는 PVS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때, 이러한 죽음의 정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뇌사는 다시 말해, 뇌 전체가 기능을 멈춘 경우를 말하며, 이는 평평한 뇌파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식물 상태는 상위 뇌가 기능을 멈췄지만 뇌간 기능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혈류는 여전히 흐르지만 의식, 인식,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기 치료 관점에서 매우 까다로워지는 부분인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 수년, 수년 동안 PVS에 머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언급한 Karen Ann Quinlan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약물 과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양 튜브를 제거해야 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할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법적 다툼 끝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제 생각에 8~9년 동안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혼수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혼수상태를 유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가장 긴 혼수상태도 19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유럽, 폴란드에 거의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지 약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고, 그는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정말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지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그가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후에 그들은 매일 대부분을 대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지난 거의 20년 동안의 병력을 채워주었고,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놓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 손상 정도에 따라, 의사들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시 의식을 되찾더라도 인지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날지 여부는 가장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의사조차도 예후에 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S 는 이러한 말기 환자나 말기 치료 환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의 원천입니다.

그럼, 안락사에 대한 몇 가지 주장, 찬반 양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동적 안락사와 대조적으로, 예전에는 적극적 안락사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의료 윤리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 종종 사용하던 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의가 진행된 방식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안락사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진정한 안락사가 되려면 적극적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락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적극적 안락사라고 불렀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이첼스는 수년 전에 안락사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고전적이고 이제는 고전이 된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환자가 죽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되면 환자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거나 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으며,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환자의 죽음을 재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게 두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5기 췌장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췌장암으로 죽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제 동료들도 있는데, 췌장암은 가장 심각하고 공격적인 암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서 회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일찍 발견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사례에서 그 사람은 결국 죽었고, 많은 암 환자의 경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쩌면 며칠 또는 몇 시간 남았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 왜 그 사람이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동물에게 자비롭고 인도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인간에게는 왜 안 되죠? 그래서 레이첼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실험, 예를 사용합니다. 스미스와 존스 사이에는 각 사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아이가 죽으면 상당한 상속 재산을 받을 조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조카를 돌보고 있을 때 조카가 욕조에 빠지고 머리를 부딪히고 얼굴을 아래로 하고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가 익사하면 막대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물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스미스는 머리를 숙이고 그를 익사시킵니다. 이제 존스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의 조카도 넘어져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고 얼굴을 먼저 물에 빠집니다.

이 경우, 존스는 조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이는 결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존스의 개입 없이 익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존스는 조카의 머리를 물속에 넣지 않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더 나은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카가 죽도록 계속 보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상황 사이에 도덕적 평가 측면에서 일종의 동등성이 있는데, 한 경우에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수동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악한 측면에서 죽이는 것과 죽게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면, 좋은 이유로 죽이거나 죽게 두는 경우 왜 선한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레이첼이 여기서 능동적 및 수동적 보험에 대한 우리의 직감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은 말기 치료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이는 것을 죽게 두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는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게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을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답은 그것이 보통 덜 책임감 있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사례를 들을 때, 거의 항상 살인이 잘못되고 살인인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살인이 도덕적으로 괜찮고 의도가 좋은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뉴스에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사례를 들을 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맥락, 의도 및 관련 목적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죽어가는 사람이나 말기 치료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의지에 맞춰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들의 죽음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에 극심한 고통이 수반될 때, 우리는 레이첼과 다른 안락사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를 더 동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다른 요점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것들은 레이첼과 다른 사람들이 안락사를 옹호하는 데 사용한 일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스스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것. 공리주의적 주장에 따르면 안락사는 더 큰 행복과 전반적인 고통의 감소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 다시 말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특히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황금률의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기 상태에 있고, 당신이 죽을 것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죽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렇게 죽는 게 낫겠어요?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아시다시피, 가능한 한 빠르고 고통 없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적 선호도를 나타낸다면, 우리가 말기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황금률을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레이첼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이 회복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정확하지 않은 예후와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 방침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나요? 레이첼의 답변은 의사가 때때로 착각한다고 해서, 어떤 경우가 절망적일 때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례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첼에 따르면, 특정 환자를 진찰하는 여러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안락사를 고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상황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안락사가 항상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수년 전, 의학 윤리학자인 로널드 먼슨이 J. 게이 윌리엄스라는 가명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레이첼의 견해와 더 일치하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선집을 엮을 때, 제 생각에는 의학 윤리 선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안락사 반대 견해를 옹호하는 적절한 기사를 찾을 수 없어서 직접 썼고, 그런 다음 아마도 안락사 반대 주장과 동일시되고 싶지 않아서 이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저는 Leon Kass와 같은 사람들이 안락사에 반대하는 매우 잘한 주장과 기사를 많이 보았지만, 이 기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이나 선집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윤리 수업을 가르칠 때 여러 윤리 교과서를 사용했고, 이 Gay Williams 기사와 이 Munson 기사가 모든 교과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결하고 그는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대부분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전달합니다. 하지만 Munson에 따르면, 우리는 그를 가명 Gay Williams라고 부를 것입니다. 안락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고 이기심과 실질적 효과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심지어 어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죽거나 죽어가는 환자에게도 안락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부상이나 질병이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능동적-수동적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으로부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계속 살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자연법 논증입니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텔로스 또는 특정 설계 계획의 개념은 우리 자신의 몸을 포함하여 자연에서 보는 모든 것에서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관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의 기능은 우리의 삶을 보존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은 계속 살려는 이러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락사는 그것에 폭력을 가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텔로스와 모순됩니다.

안락사는 생존이라는 자연스러운 목표에 폭력을 가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자연과 우리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안락사를 당하면 회복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결정이며,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이 있었거나, 사람이 오래 사는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회복이 있거나, 심지어 신의 기적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재촉함으로써 그들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사형제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사형제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주어진 사건에서든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사형을 두지 않는 이유로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비슷한 종류의 논리가 포함됩니다. 진단이나 예후가 틀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적어도 그들이 수년 동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측면에서 말이다. 세 번째 주장은 안락사의 광범위한 관행이 의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다. 그 아이디어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상적인 관행이 생명을 구하려는 의료 전문가의 헌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항상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옵션이 항상 가능하다면, 그들은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보다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려되는 점은 의료 전문가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 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 게이 윌리엄스는 여기서 일종의 인과적, 미끄러운 경사로에 대해 걱정하고, 그는 이 인과적 경사로에서 의사 보조 자살이라는 개념으로 작업합니다. 자살은 의사 보조 자살과 안락사의 경우보다 논란이 적습니다. 자살의 경우,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사 보조 자살을 승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거나 스스로 안락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욕망이나 선택과 함께 또는 일관되게 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자발적 안락사로,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개인의 희망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선호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죽을 의무가 있는데, 안락사의 선택권이나 도덕적 수용 가능성이 아니라, 죽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 너무 널리 퍼지고 흔해져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특별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사회 전체에서 나치가 말했듯이 쓸모없는 먹는 사람이라는 태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가야 할 때입니다. 오래 사셨고, 사실상 우리에게 짐이 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하건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여기서 꽤 엄중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안락사 반대 학자들이 지적인 일반적인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성경과 안락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임스 레이첼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하고, 이런 종류의 우려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이 미끄러운 경사로로 굴러가지 않고, 사람들의 욕망과 소원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배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원에 반하는 비자발적 안락사의 사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죽을 의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안락사에 반대하는 꽤 표준적인 주장들입니다. 좋아요, 그럼 성경과 안락사. 안락사에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살펴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고통과 자비의 완화를 옹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을 지지하는 추정을 만드는 사실이며, 극심한 고통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적 규범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죽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은 그의 성도들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구절도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나 의사 보조 자살을 지지하는 추정을 만들어냅니까? 셋째, 살인을 금지하는 여섯 번째 계명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요점이 때때로 제기됩니다. 그것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대부분이 말할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이며, 확실히 성경적 관점에서 사형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약 시대에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신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는 살인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 강간범 등에게 사형을 적용하고, 정당한 전쟁도 적용하세요.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나가서 사실 온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살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명백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죽이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따라서 안락사 옹호자는 이것이 또 다른 예외 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와 정당한 전쟁 또는 사형의 경우 살인이 관철될 수 있듯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를 죽이고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안락사를 옹호하기 위해 제기되는 성경적 주장입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여기서 호소되는

가장 중심적인 원칙은 생명의 신성함, 즉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우리는 신에 의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명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은 당신에게 생명권을 주었지만, 신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의 소유물입니다.

이 주장은 플라톤의 대화 중 하나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살은 신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소크라테스는 안락사,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은 자살, 왜냐하면 신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소크라테스에게 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는 유아 살해를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는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예외가 없다면, 이것은 존중되어야 할 금지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성경에는 자비적 살인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의로운 전쟁과 자기 방어, 사형에 대한 다른 예외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으로 고통받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이러한 종류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서 강조됩니다.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통에는 성격 형성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삶, 죽음, 내세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적 관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죽음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복해야 할 적입니다. 그것은 싸우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됩니다.

Dylan Thomas의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그 좋은 밤에 온순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분노하세요, 빛이 죽어가는 것에 분노하세요. 이 시는 우리가 죽음에 저항해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딜런 토마스는 아버지의 죽음과 그가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딜런 토마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찬성파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더 존엄한 일인데, 기꺼이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도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 쓰러지는 게 품위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 주장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죽음은 저항해야 할 적입니다. 제 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안락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폐기종을 앓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점에 안락사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의사인 잭 케보키안에게 전화해서 그의 자살 기계를 우리 아빠에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폐기종은 폐렴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가족은 다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데려와 호스피스 케어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제 아빠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수의사 밑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기술자였습니다. 또한, 저는 몇 년 동안 폐의학과 의사의 보험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단계의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환자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빠에게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통을 죽이기 위해 모르핀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족 대부분은 그가 시간 문제일 뿐 죽을 것이라는 희망을 기본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특히, 그가 더 잘 먹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나는 그가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든지 줄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게 뭐든 내가 가져다 줄게요.

우리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식료품을 펌핑하고 모르핀을 계속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식욕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죽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 형제 중 한 명이 저와 함께 앉아서, 알다시피,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빠는 죽을 거야. 회복할 방법이 없어. 나는 말했지, 글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 그들은 말했지, 아니, 당신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들은 나한테 꽤 완강했어. 나는 말했지, 그냥 내가 하게 내버려두라고. 그는 배고프다. 나는 계속 그에게 먹이를 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글썄, 그는 점점 더 강해졌고, 회복했어. 그는 4년 더 살았어. 그동안 그의 믿음은 정말 커졌어. 그는 복음서를 읽고 있었어.

보기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나중에, 글썄요, 짐,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1%의 가능성에 대해, 나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신의 섭리로, 우리 아빠는 힘을 모아 4년 더 살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그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희망에 반하는 희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핵심은 변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좋은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게 아빠의 식욕을 유지해서 먹고 더 강해질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을 억제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걸로 인해 심각한 금단 증상을 보인 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빠가 그것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중독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아편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편,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여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을 사용하면 실제로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처했던 또 다른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빠가 중병에 걸리기 1~2년 전인 1997년에 어머니의 고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91세나 92세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고통을 겪고 있었고 신장이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안다면, 그게 다입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모에게 그녀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꽤 강한 마취제를 주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경우에 무엇이 최선인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의사를 저에게 소개했고, 의사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허락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 저는 얼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8, 10, 12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제 큰고모는 그날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일은 이중 효과의 원리라는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 이 원리는 기독교 윤리, 특히 자연법,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행동 방침이 선과 악 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선과 악의 측면에서 혼합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행동 방침을 취하는 것이 언제, 만약 있다면,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제 큰고모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중 효과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악은 선한 효과를 생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은 직접적으로 의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행위의 악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행하는 데는 비례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이익은 예측 가능한 피해만큼 적어도 커야 합니다. 그것이 이중 효과의 원칙입니다.

제 큰이모에게 적용한 것처럼, 그녀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이 강력한 마취제를 주는 것은 악이 좋은 효과를 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좋은 효과는 그녀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악은 그녀가 더 빨리 죽는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수단은 마약 그 자체입니다. 그녀가 조금 일찍 죽는 악은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둘째, 그것은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 마약을 준 목적은 고통을 없애거나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죽이거나 더 빨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녀에게 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녀의 고통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례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그녀가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시점보다 몇 달 또는 몇 년 앞서 그녀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차피 거의 의식이 없었고, 그저 신음하고 끄끙거리고, 그녀가 의식이 있는 한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고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당기는 것은 그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것으로 매우 분명하게 상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 효과의 원칙에 근거하여 내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것은 많은 말기 치료 사례와 다른 맥락에 적용되는 매우 유용한 원칙입니다. 사실, 별도의 강의에서 동물 복지 와 동물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중 효과의 원칙이 그 맥락에서 어떻게 유용한지 언급할 것입니다 .

그럼, 안락사와 의사 보조 자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안락사와 의사 보조 자살입니다.